

지역 소식통

# 완주군 통합사례관리사 '호응'

### 김제시, 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김제시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일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결산검사는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전반에 대해 김제시 의회의 결산검사를 받아 다음연도 예산 편성·집행에 활용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서백현(대표위원) 의원을 비롯해 허현기, 이원섭 전직 공무원 등 3명이 지난 3월 시의회에서 선임되었다. 결산검사의 내용은 세입·세출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기금의 결산, 재산 및 물품의 결산, 금고의 결산, 기타 재무운영의 합당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시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사업 목적과 법령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며, 결산검사 후에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승인신청 절차를 거쳐 6월 제1회 의회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 시민에게 결산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소방서,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김제소방서(서장 박기선)는 20일 김제 중앙중학교 강당에서 2학년 학생 84명을 대상으로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미래소방관 체험 교실에서는 소방관의 역할 등 강의식 교육과 화재진압, 구조, 구급업무 등 실습 교육 등이 병행 실시되었으며 특히 학생들이 방화복을 직접 입어보고 공기호흡기를 착용하는 등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

직업교육은 교실수업교육이 아닌 실제 체험활동이 매우 중요하며 학생들은 이러한 직·간접체험을 통해 미래 직업에 대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지평선 대학 역량강화 워크숍

김제시(시장 이근식)는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장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김제지평선 대학을 대상으로 20일 충남 금산 하늘물빛정원에서 교육생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농업인의 역할제고를 위해 조성용 강사를 초빙해 '김제농업인의 끝없는 합시다'라는 주제로 2시간에 걸친 강의를 진행했고, 쌀 소비촉진을 위한 쌀가공 산업 및 농업발전을 위해 신장철 강사를 초빙해 '쌀 소비촉진을 위한 쌀가공 산업'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 주거환경·법률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완주군이 운영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의 든든한 희망 전도사가 돼주고 있다.

완주군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7명의 통합사례관리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위기가구를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한 후 문제 상황(건강, 경제, 일상생활, 주거환경, 법률, 고용 등)에 대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달 11일 비봉면 한 농가에서 주택이 전소되는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 완주군 희망복지지원단은 재빠르게 피해 가정을 방문해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한편, 피해가정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재해긴급지원비(300만원)를 받도록 했다.

또한 깊은 시름에 빠진 화재피해 가구가일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완주군이 운영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의 든든한 희망 전도사가 돼주고 있다.

색하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해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310여 가구에 맞춤형급여 및 긴급지원 등 공적급여를 비롯해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물품지원, 후원금 연계,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 1130건의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바 있다.

이계임 사회복지과장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주민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 있는 이웃에게 희망의 징검다리 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다문화센터, '쿠첸 사랑의 밥상' 진행

### 20명 대상... 밥피자·맥반석 계란·콩 줍기 등 교육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희순)는 20일 센터 가족실에서 결혼 이주여성 20여명이 함께 한 '쿠첸 사랑의 밥상' 요리교실을 진행했다.

(주)쿠첸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재능기부 형태의 요리교실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완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공모에

선정됐다.

요리교실은 상·하반기 2회로 선정되어 실시하는 것으로, 이날 행사에서는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등이 모국인 이주여성 총 20명이 참여하여 밥피자와 맥반석 계란을 만들어 보고, 조리되는 시간동안 콩 줍기와 휴지 날리기 등 팀별 레크레이션이 진행되어 우리나라 음식을 쉽고 재미있게 만들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요리교실에 참여한 레티홍강(31)씨는 "음식 솜씨가 없어서 아이들에게 해줄 게 마땅치 않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간단하고 맛있는 요리를 해줄 수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희순 센터장은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군 어두마을, 마을생활환경 개선 추진

완주군은 상관면 어두마을이 전라북도 2017년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공모 선정으로 도비 1억7000만 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준비를 포함해 총 3억4000만원이 마을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월 어두마을 주민들에게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완주군은 신청 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최대한

반영한 뒤 마을안길 정비 등의 사업을 발굴해 기본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어두마을은 이번 사업추진으로 협소하고 위험한 마을안길 등의 개선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어두마을 주민들의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2017년

###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선정

말까지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과는 별도로 어두마을에 우선적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농촌주택 개량사업, 빈집 정비사업,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 사창산 체육공원 꽃길 만들기

### 김제시 용지면, 철쭉 100주 심어

김제시 용지면(면장 조기문)에서는 사창산 체육공원 주변에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기 위해 20일 철쭉 100주를 심었다.

이날 작업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김명선)이 주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10명과 노인일자리아사업 참여자 32명 등이 참여했다.

이번 철쭉심기 작업에 참여한 농업품질관리원 직원은 비록 날씨는 덥고 몸은 힘들었지만 사창산 주변 철쭉으로 주민들이 아름다운 꽃길을 걸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김명선)은 더불어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이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겠다고 말했다.

조기문 용지면장은 "사창산 체육공원 주변 철쭉 심기를 통해 용지면 주민들이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식재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앞으로도 용지면민을 위한 좋은 일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행복한 용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 장애인 인식개선 거리 캠페인 실시

김제시 장애인복지관(관장 강정완)은 20일 오전 7시부터 한 시간 가량 하이마트, 구보, (구)검산동사무소 사거리에서 김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복지분과, 김제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합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실시한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은 "장애는 편견으로부터 시작됩니다."와 "장애인 고용!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시작입니다."란 슬로건으로 3개 기관 33명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벽을 깨고, 장애인도 정상적이고 원만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와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번 행사는 특히 37회 장애인의 날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4월 20일 3개 기관 연합으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매년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로 인해 미려하나 김제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활동영역을 넓히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보다 나은 장애인 삶을 위해 힘을 보태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평선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